

한국 최초 발도르프 서커스 연수

25~29일 속초 소야초교서 ... 저글링 · 접시돌리기 등

여름방학을 맞아 세계적인 대안교육인 독일 발도르프학교 교사 초청 발도르프교육 서커스 어린이캠프가 운영된다.

속초발도르프교육교사연구회(대표 김용근, 공현진초 교감)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속초 소야초교에서 서커스 연수를 진행한다.

이번 연수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열리는 것으로, 아이들의 균형감각 강화를 위해 요즘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움직임교육이 진행된다.

이번 연수 강사는 에르드무테(Erdmuthé)와 펠레시니, 줄리안 3명의 독일 함부르크 발도르프학교 교사들이다. 이들은 수년간 담임교사와 영국, 호주, 뉴질랜드에서 교사교육 경험이 많은 교사들

이다.

캠프 내용으로는 어린이 성장 과정에 꼭 필요한 균형감각 강화를 위해 저글링, 디아블로, 접시돌리기, 스킵저글링, 원판던지기 등을 배운다.

참가 신청은 거성초교 임명진 교사(010-4880-0345)에게 하면 된다. 최광호 기자

주민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모색

고성군보건소 2011년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개최

고성군보건소는 지난달 28일 오후 4시 농업기술센터 3층 소회의실에서 2011년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및 고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제2조 1797호 규정에 따라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추진중인 사업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자는 목적으로 실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소개를 시작으로 2010년도 건강증진사업 추진현황 및 2011년 사업계획보고, 금연·재활·비만·운동·영양 등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방안 등을 협의했다.

2011년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회장(당연직) △홍영순(고성



고성군보건소는 지난달 28일 오후 4시 농업기술센터 3층 소회의실에서 2011년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개최했다.

군보건소장) ◆위원 △홍순흥(회장, 고성군생활체육협의회) △김창길(지부장, 음식점중앙회 고성군지부) △김정필(회원, 고성군의사회) △주기창(회원, 고성군행정동우회) △한성수(교수, 경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최순미(보건

담당, 강원도고성교육지원청) △도현미(순회교사, 강원도학교보건교육연구회 고성분회) △이형석(출장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성지사) △송주은(교수, 동우대학교 호텔조리과) 등이다.

박승근 기자

고성을 빛낸 호국인물 [6]

독립운동가 정 남 용(鄭南用)

1896년 ~ 1921년 4월 18일

본적은 강원도 고성(高城) 현내면 철통리 출신이다. 다른 이름으로 정필성(鄭必成)·홍우식(洪宇植)이라고도 하는데, 일찍이 불문(佛門)에 몸담아 고성군 건봉사(乾鳳寺) 승려로 있었다. 1914년 서울로 올라가 휘문의숙(徽文義塾)과 중앙불교포교당에서 공부하였고, 1919년 3·1운동 직후 대한민국의립시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에서 조직된 비밀 독립운동 단체인 독립대동단(獨立大同

團:대동단)에 가담해 활동하였다. 같은 해 5월에는 대동단의 선전 활동 책임자로서 대동단에서 발행하는<선언서(宣言書)>와<임시규칙(臨時規則)>등 각종 문서를 인쇄 배포하는 한편, 청년단 조직을 이끌면서 단원 모집과 조직 확대에도 힘썼다. 그러나 일본 경찰의 포위망이 좁혀지자 단장 전협(全協) 등과 협의해 본부를 상하이(上海)로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1919년 10월 10일 먼저 김가진

(金嘉鎭)을 상하이로 망명시켰다. 이어 의친왕(義親王) 이강(李堉)을 대동단의 수령으로 추대하고 망명 계획을 추진, 그해 11월 9일 이을규(李乙奎)·한기동(韓基東)·송세호(宋世浩)와 함께 의친왕을 수행하고 만주 안동(安東, 현 단둥)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사실을 알아챈 일본 경찰의 추격을 받아 11월 11일 만주 안동현역(安東縣驛)에서 체포됨으로써 대동단 본부의 이전 계획은 무산

되었다. 이후 경성지방법원에서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복역 중 잔혹한 고문으로 인해 1921년 4월 18일 옥중에서 26세 나이로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선생의 공훈을 기리어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출典:
●韓國獨立運動史(愛國同志援護會, 1956)
●독립운동사 3·4·8(독립

운동사편찬위원회, 1971·1972·1976)
●高等警察要史(慶尙北道警察部, 1934)
●독립유공자공훈록(獨立有功者功勳錄 第7卷(국가보훈처, p.636)
●고성군지(高城郡誌, 고성군, 1998, 보정판, p.p144~145.
<고성향토문화연구회 제공>
(010-5373-2156)

가라홀시단(加羅忽詩壇)

민등산

홍의현(洪義鉉)

어설픈

향기는 가라
생에 있어 올림이지 못하겠거든
푸른밤 별빛처럼 쏟아져 내려도
별빛 싸라기 하나 담을 수 없는

내 뜻을 너 굽히지 못한다

따스한 눈빛도 없이
부스스 몸으로만 일어서 말을 하느니
그 옛날 내 기쁨졌던 몸을 아느냐

이름을

잃어버린지 오래
돌비늘 틈새 사이로 지나가는 바람도 예사롭지 않은 계절
사람아,

너는 내 눈빛을 기억 못하지만
깊은 밤 하얗게 내리는 추억으로 속정만 영그는

불기 많은 몸
깨어지고 부서져
한없이 낮고 낮아져
사람아,

내 심장을 밟을 때쯤에라야
그대들의 오묘한 길로 어설픈 들풀이라도 반겨야 한다



-고성문화회 회원(카페지기)
-무쇠다리 자건클럽 회장
-'다디자인' 운영

◆시작노트

자전거를 타거나 산책 삼아 오르던 가까운 아산을 오르면서 발 끝으로 부딪혀오는 돌들과 빗물로 깊게 패인 산의 상처가 유난히도 드러날 때가 있다. 산불로 혹은 제각각 나름의 이유들로 황폐화가 진행된 산은 약간의 빗물에도 토사가 흐르고 파헤쳐진 속살을 드러내고 만다. 가까이 슬프고 당연히 돌아봐야 할 일들임에도 모르는 일로 치부하기 바쁘다. 산 그리고 자연의 소중함이야 누가 모르지 않겠지만 가까운 것, 소중한 것들에 대해 다시 한번 돌보기를 들고 살펴봄이 마땅하지 않겠는지. 그것이 곧 글이 되고 시(詩)가 된다 면 더욱 값진 일이 아니겠는지.